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8. 7

홍보팀(3441-0835)

담당부서	건설정책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연구위원	전화번호	3441-0611
------	---------	-------	----------	------	-----------

제 목: 2007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대형업체 지수상승 영향, 7월 체감경기지수 소폭 상승, 업체 규모별 체감경기 양극화는 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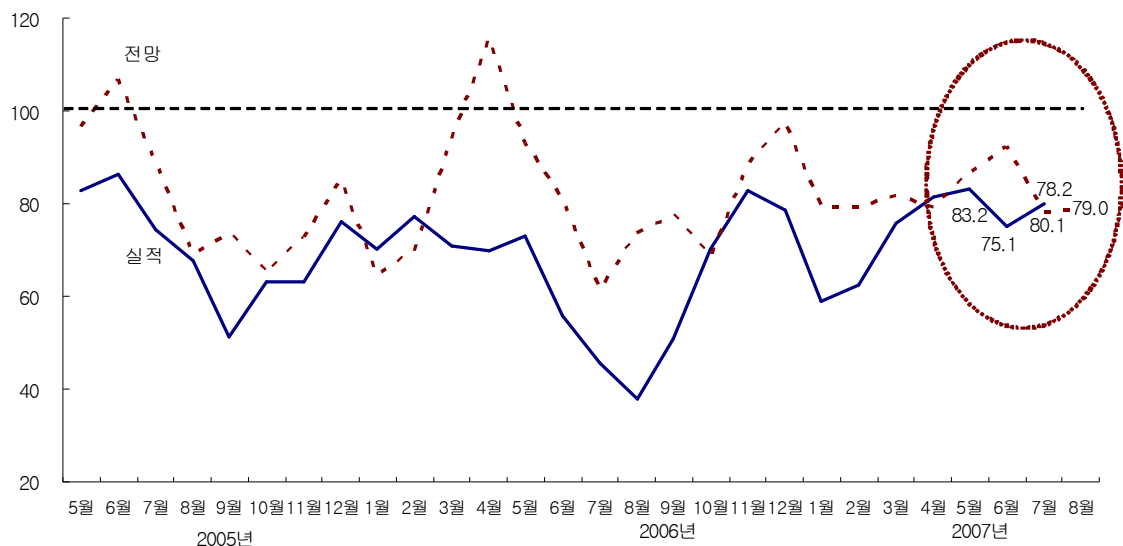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5.0p 상승한 80.1을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7월 들어 소폭 개선됨.
 - 통상 7, 8월에 계절적 요인으로 하락하는 체감경기 지수가 올해는 지난 6월 8.1p 하락함으로써 한달 일찍 시작하였으나, 7월 들어서는 오히려 지수가 소폭 상승함.
 - 이는 대형업체의 체감경기 지수가 전월대비 16.7p 상승한데 힘입은 결과임. 대형업체의 체감경기 지수는 100.0을 기록해 작년 11월 이후 다시 기준선인 100에 도달함.
 - 중견업체의 체감경기 지수도 전월대비 4.6p 상승한 81.3을 기록했으나,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지수는 전월대비 8.2p 나 하락하여, 업체 규모별 체감경기의 양극화는 더 심화됨.
 - 이로써 지난 5월까지 계절적 요인에 의해 상승한 체감경기 지수는 이후 큰 등락 없이 80을 전후로 횡보세를 지속함.
- 공사물량지수도 전월대비 5.8p 상승한 81.7를 기록해 체감경기과 마찬가지로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공사물량의 침체 수준은 전월대비 소폭 개선됨.
 - 공종별로 보면 토목물량지수가 전월대비 12.0p 상승한 79.2를 기록해 물량침체의 체감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가운데, 주택, 비주택은 전월대비 각각 6.4p, 3.4p 상승한 79.9, 79.3을 기록함.
 -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 물량지수가 전월대비 8.3p 상승해 기준선인 100에 도달했는데, 특히 토목물량지수가 전월대비 25.0p 급증한 108.3을 기록해 대형업체들의 토목물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 중견업체의 물량지수도 전월대비 9.4p 상승한 84.4를 기록했으나, 중소기업은 전월대비 1.1p 하락한 57.3을 기록하여 업체 규모별 물량지수 양극화도 더 심화됨.
- 자금관련 지수, 인력 및 자재수급지수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지만, 자재비 지수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임.
 - 인력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108.1, 109.8을 기록하여 양호한 상황이고,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급 지수도 95.3, 92.5를 기록해 대체적으로 양호
 - 반면, 인건비 지수가 86.4을 기록해 인력수급상황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황에는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재비 지수도 74.2를 기록해 자재수급상황은 원활하나 3월 이후 계속해 자재비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7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대형업체 지수상승 영향, 7월 체감경기지수 소폭 상승,
업체 규모별 체감경기 양극화는 더 심화

- 2007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80.1을 기록함.
 -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5.0p 상승하여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전월대비 체감경기 침체의 수준은 소폭 개선됨.
 - 지난 6월 통상 7, 8월에 계절적 요인으로 지수가 하락하는 예년에 비해 한달 앞서 지수가 하락했었는데, 7월 들어서는 지수가 도리어 소폭 상승함.
 - 이는 대형업체의 체감경기 지수가 전월에 비해 많이 상승함에 따른 결과임.
 - 한편,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 못미친 80.1에 불과해 지난 달에 비해 체감경기 침체의 폭이 다소 완화된 수준에 불과하며, 체감경기는 아직 좋지 않은 상황임.

< 경기종합 BSI 추이 >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건설경기가 호황이던 2001년 11월과 12월, 그리고 2002년 2월~6월, 12월에 기준선인 100을 넘어선 이후 아직까지 100을 넘지 못하고 있음.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 건설업체가 100.0, 중견업체가 81.3, 그리고 중소업체가 55.4를 기록함.
 - 대형업체가 전월대비 16.7p나 급상승하여 작년 11월에 100.0을 기록한 이후 다시 기준선인 100에 도달함.
 - 한편, 중견업체는 전월대비 4.6p 상승한 81.3을 기록하여 대형, 중견업체가 모두 전월대비 체감경기 침체의 폭이 완화됨.
 -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도리어 전월대비 지수가 8.2p나 하락하여, 업체 규모별 체감경기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됨.
 -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지수는 55.4로 50대에 불과해 대형, 중견업체의 체감경기가 비교적 양호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6년 9월	10월	11월	12월	2007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50.9	70.1	82.8	78.7	58.9	62.3	75.8	81.3	83.2	75.1	80.1	78.2	79.0
구 모 별	대형	60.0	70.0	100.0	90.0	70.0	81.8	84.6	91.7	92.3	83.3	100.0	100.0	91.7
	중견	48.1	84.6	91.7	85.0	57.7	56.0	82.1	86.7	90.6	76.7	81.3	70.0	81.3
	중소	43.5	53.7	52.6	58.3	47.4	46.7	58.1	63.0	64.0	63.6	55.4	62.1	61.7
지 역 별	서울	58.0	71.5	89.9	82.1	67.4	72.0	89.4	89.4	94.8	87.9	92.9	91.6	88.6
	지방	40.0	67.7	67.7	71.8	42.6	45.9	52.8	71.3	66.7	57.9	60.1	60.3	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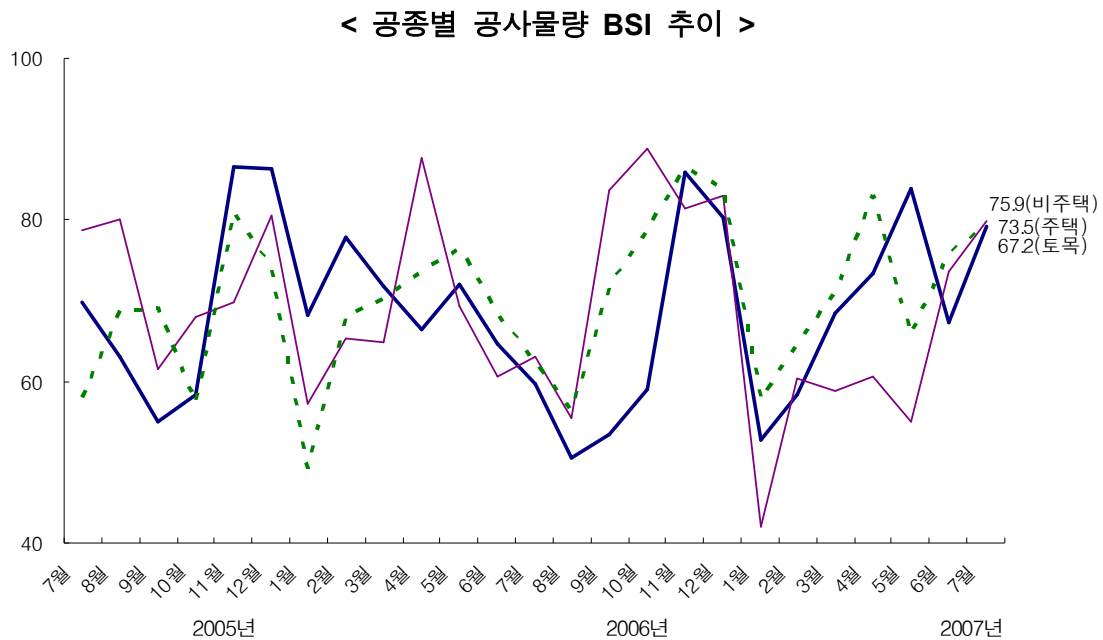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92.9, 지방업체가 60.1을 기록함.
 - 서울업체의 지수가 전월대비 5.0p 상승했으며,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2p 상승함.
 - 이로써 서울업체와 지방업체가 모두 소폭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개선된 가운데, 서울업체와 지방업체간의 체감경기 양극화는 전월보다 조금 더 심화됨.
- 2007년 8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79.0을 기록함.
 - 7월 실적 지수보다 1.1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체감경기가 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 업체 규모별로 세부적인 건설경기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건설업체는 91.7, 중견업체는 81.3으로 전망했으며, 중소기업체는 61.7로 전망함.

공사물량지수 전월대비 5.8p 상승한 81.7 기록,
특히, 대형업체 토목물량지수 전월대비 25.0p 상승

- 2007년 7월 공사물량지수는 81.7을 기록함.
 -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5.8p 상승하여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전월대비 공사물량의 침체 수준은 전월에 비해 소폭 개선됨.
 - 그러나 지수 자체는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 훨씬 못 미쳐 건설업체이 느끼는 물량은 아직도 좋지 않은 상황임.
- 공종별로 보면 토목 79.2, 주택 79.9, 비주택 79.3을 기록하여 건설업체

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물량침체의 폭은 공종에 관계없이 모두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토목물량지수가 전월대비 12.0p 상승했고, 주택, 비주택물량지수가 전월대비 각각 6.4p, 3.4p 상승하여 토목물량에 대해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침체의 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개선됨.



- 업체 규모별 공사물량지수는 대형업체 100.0, 중견업체 84.4, 중소기업체 57.3을 기록함.
 - 전월대비로는 대형, 중견업체가 각각 8.3p, 9.4p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체는 전월대비 1.1p 하락하여 업체 규모별 물량지수의 양극화도 체감경기와 마찬가지로 심화됨.
 - 특히,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는 50대에 머물러 중소기업체들이 느끼는 전월대비 물량 침체의 수준은 여전히 가장 큼.
 - 대형업체의 토목물량지수는 전월대비 25.0p나 급상승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대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건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81.7	100.0	84.4	57.3	95.1	61.1
	전망	84.9	100.0	90.0	61.3	95.6	68.3
토목	실적	79.2	108.3	73.3	51.9	92.8	57.9
	전망	80.8	108.3	76.7	53.2	95.3	58.0
주택	실적	79.9	100.0	86.7	48.6	91.6	61.6
	전망	84.3	100.0	100.0	47.9	95.4	67.1
비주택	실적	79.3	108.3	73.3	51.9	96.8	51.5
	전망	82.7	100.0	86.7	57.9	99.2	57.0

주 : 실적은 2007년 7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7년 8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전월보다 5.2p 상승한 95.1을 기록했고, 지방업체는 전월대비 4.4p 상승한 61.1을 기록하여 서울과 지방업체 모두 체감적으로 느끼는 물량침체의 수준은 소폭 개선됐으나, 서울과 지방업체 간 물량지수의 양극화는 아직도 여전히 심함.
- 2007년 8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84.9을 기록하여 7월보다는 전월대비 공사물량 침체의 폭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인력 및 자재수급지수 양호,
자재비지수 여전히 악화**

- 공사대금수급지수는 전월대비 4.2p 상승한 92.5,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대비 4.4p 상승한 95.3을 기록하였으나, 지수 자체가 아직 기준선인 100에는 조금 못 미쳐 기업들의 자금 관련 상황이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님.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92.5	100.0	96.9	78.8	97.6	84.6
		전망	94.9	100.0	100.0	83.1	101.2	85.2
	자금조달	실적	95.3	108.3	96.9	78.3	107.8	75.9
		전망	100.8	108.3	106.7	85.4	112.0	84.1
인력	수급	실적	108.1	116.7	103.1	103.6	112.6	101.8
		전망	108.1	116.7	106.3	100.0	113.2	100.9
	인건비	실적	86.4	91.7	87.1	79.5	89.3	82.1
		전망	87.9	91.7	90.6	80.5	91.6	82.2
자재	수급	실적	109.8	116.7	109.4	102.4	115.6	100.9
		전망	102.2	100.0	106.3	100.0	105.3	97.2
	비용	실적	74.2	83.3	78.1	59.0	82.0	62.0
		전망	73.0	83.3	75.0	58.5	79.7	62.5

주 : 실적은 2007년 7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7년 8월 예측지수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역시 대형, 중견업체의 자금관련 지수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중소기업체의 자금관련 지수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인력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108.1, 109.8을 기록하여 인력과 자재수급에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지수는 86.4를 기록하여 인건비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재비지수는 74.2를 기록하여 3월 이후 계속해 자재비 상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